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2호 [부제 제25275호] 주체105(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굴의 영웅사사상을 수놓아온 온 나라 천만군민은 가슴벅찬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혁사의 분수령으로 되는 우리 당대회에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고 우리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주체조선의 만리마산화를 창조하고 위대한 어머니당대회를 민족사적대경사로 장식한 온 나라 천만군민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새로운 투쟁과 전진,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위대한 설계도따라 태양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펼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1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진행될 김일성광장은 장장 70여층상을 헤아리는 우리 당의 력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열어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광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광장정면에는 백전백승의 기치인 조선로동당기와 《영광》, 《경축》이라는 글발이 부착되어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고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발을 드러온 대형기둥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만세!》,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등의 구호들과 글발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가 광장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기발제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적위훈을 세운 공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제일본조선인총합단과 재조선인총합회총합단,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변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광장상공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 울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승리의 5층을 향한 충정의 70일전투 기록장에 전례없는 로적위훈을 새기고 당 제7차대회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모신 당기발대렬이 들어서자 광장은 격정의 대하로 실재하였다.

군중들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하여

부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수령의 당》, 《어머니당》, 《강철의 당》, 《일심단결》,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청년중시사상 만세!》, 《주체의 핵강국, 군사강국》, 《우주강국》 등의 글발이 새겨진 가장물들과 함께 용용히 물결쳐가는 당기발대렬, 군인가족대렬, 북송대렬을 비롯한 시위대렬들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빛내여가는 조선로동당의 영웅적

행로를 서사시적화풍으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주체조선의 국력을 우주에 떨치며 세기적인 전진을 이룩한 승리자의 긍지높이 시위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나아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혁명적당군으로 강화발전된 최첨단혁명강국의 위력과 세계적인 군사강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는 시위대렬을 보면서 관중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악한 불패의 혁명무력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이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심장에 새기였다.

《조선청년행진곡》의 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혁명의 최불봉을 높이 추켜들고 광장으로 들어서는 청년학생대렬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자라나 세상에 놀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펼쳐가는 긍지드높이 힘차게 전진해갔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묶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군중들은 천만의 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와 혈연의 정으로 굳게 묶어세워 위대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음을 힘있게 과시하면서 주석단대를 지나가는 시위참가자들의 총천연 기세가 대오마다에 차넘치였다.

강대한 조선의 기상이시고 높뛰는 조선의 심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물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용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당 제7차대회 결집관철로!》, 《당의 명도세계를 철저히 세우자!》, 《자력자강》 등의 글발을 새긴 가장물들과 구호를 앞세운 시위대오들이 《만세!》의 환호성을 연이어 터쳐올리며 광장을 누벼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존엄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승리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당 제7차대회정신을 받들고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정신과 자강혁명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본래를 만철하에 펼쳐나갈 강용한 인민의 기상을 과시하며 시위대오는 끝없이 이어졌다.

주체혁명의 불멸의 침로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청년전위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영웅청년화를 창조해나갈 불타는 명세를 안고 발걸음드높이 나아갔다.

우리 당의 전면무장화방침을 받들어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차와 낫과 밭을 묶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의 동물을 더욱 우렁차게 울려온 로동적위군대렬이 미래와 적대세력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전략자들을 단애에 소탕해버릴 목적의 의지를 안고 부부당당히 행진하였다.

관중들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원동력으로, 일심단결을 백승의 보검으로, 최강의 핵억제력을 강성변명의 담보로 하여 위대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우렁찬 박수를 보내였다.

혁명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당을 따라 광활한 미래로 총매진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진행



천민의 대오를 백전백승으로 이끌어 인민의 꿈과 이상을 활짝 꽃피우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일대 도약기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경축하고있는 전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크나큰 기쁨이 온 나라에 자라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이 10일 저녁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 그 주변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무리에 일심단결하여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선기를 열어나가는 용진군열에서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환희를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광장 중심에 설치된 무대에는 밝은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마크와 휘날리는 붉은기울 배경으로 《7차대회》, 《경축》이라는 글발 등이 장식되어있었다.

김일성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 리수용동지, 김평애동지, 오수용동지, 박민기동지, 김진철동지, 노광철동지, 양형섭동지, 코두철동지, 김인홍동지, 최부일동지,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리용호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와 도당위원장들, 총정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 혁적위훈을 세운 공로자들이 주석단

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 당, 무력, 정치기관, 사회단체,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자리 잡고있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 새중조선인총연합회축하단, 사회주의조국에 제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세민족민주전선 중앙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 잡고있었다.

《영광을 드리지 위한 우리 당애》의 노래가 울려퍼지자 어머니당 대회를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환희가 출몰걸로 펼쳐지고 당애 드리는 뜨거운 감시와 축원의 마음이 어린아름다운 꽃바구니가 광장에 수놓아졌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격정을 안고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인민의 환희》, 《백고 싶었습니다》 등의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의 열광마당에는 대를 이어 수명복, 당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금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혁사상 처음으로 마치고 낮과 붓을 근로인민대중의 존엄높은 모습으로 새겨주시고 이 땅위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대경륜을 펼쳐주시는 전체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대하되어 끊이지는 야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될 이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대군, 당의 전군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활력있게 전진하는 백두산청년대강국의 혁명적기상인양 《가리라 백두산으로》,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등의 노래선율이 광장을 전파하고 정채한 경축의 속도성이 더해 올라 이희의 마음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이어 광장에서는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이 진행되었다.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길을 개척한 항일의 청년전위들과 그 계승자물인 전회의 용사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세대 청년들의 넋을 뜻하여 이어 당중앙과 주체 의 원칙로 역사적 나이갈 신념과 의지를 파시하며 해불대렬들이 《우리 는 혁명의 계승자》 노래주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입장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져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기를 정중히 모신 무개자들이 활활 타오르는 혁명의 해불을, 주체혁명위업 계승의 해불을 추켜들고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받으며 광장으로 들어 섰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함글 발이 모셔지고 《당 제7차대회》, 《경축》 등의 글발들이 펼쳐진 광장은 우리 당의 70주년대회를 백두 산청년대강국을 일머세운 청년중시의 혁사로 빛내어주시는 전체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불같은 총정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당이 준 명령을 피어은 심장마다 새겨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백두산영웅전3로발전

소를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전투로 훌륭히 완공한 백두산 영웅청년들격대대렬이 장엄한 해불행진대오의 선두에서 첫 발걸음을 떼었다.

주체혁명의 시인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 사상과 신념의 감자, 당정치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자라난 백두산영웅전세대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한 해불행진대렬과 함께 울호한 불의 대하가 되어 광장을 누벼나갔다.

막달나루도 일머리후한속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실산계곡에 신념의 언저, 정춘대기념비를 일머세우고 전혁생신의 자랑한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한 선물을 마련한 우리의 미더운 백두정충들.

당이 안겨준 백두의 당력과 배짱으로 변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념대를 한순간도 늦추지 않고 필승노도적인 영웅청년신화창조자들의 환호소리가 광장을 진감하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위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무한한 감격과 영광의 분출인양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노래주악이 장엄하게 울려져지고 불멸의 존함을 모신 해불행진대렬들이 추수단열을 지나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변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웅적기상을 떨쳐나갈 필승의 심신과 락판에 넘쳐 환호를 울리었다.

어머니당의 애국의 호소에 청춘의 심장으로 화답하며 영광의 5월을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선군시대의 청년들격정신을 발휘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맹장들의 정의의지가 우렁찬 구호의 합성이 되어 수도의 하늘가로 울림이 메아리쳐 갔다.

군중들은 위대한 명도자의 슬하에서 시대의 영웅, 창조적 거인들로, 사상과 정신이 전진하고 교상한 사회주의미덕을 소유한 청년강국의 앞길을 꿰뚫어 보아주시는 자라난 청년대군이 있어 백두산대리라는 확신에 넘쳐 세 세대 청년전위들에게 열렬한 박수감재를 보내었다.

정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5월의 경축광장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만세를 목청껏 부를 총정의 그날을 그리며 총정의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 펼쳐나신 열렬정충들의 심장마다에서 떠오른 새로운 위용창조의 거대한 불길은 그대로 총공격전의 해불이 되어 혁명열, 투쟁열을 안고 질풍처럼가는 조국의 전진을 고무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무리에 굳게 뭉쳐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앞장에서 결사판결해나갈 의지에 넘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이 《일심단결》, 《선군정지》, 《백전백승》, 《사력자강》을 외치며 새기면서 씩씩하게 나아갔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청년관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웅적기상을 떨쳐나갈 필승의 심신과 락판에 넘쳐 환호를 울리었다.

청년명장들의 역센 기상과 위용이 5월의 밤하늘가에 총천하는 속에 권리마등상도형과 《만리마》 글발이 펼쳐진 광장으로 《백두산강국》 글발대렬들이 위용있게 들어 섰다.

드넓은 경축광장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붉은기도형, 《혁명정신》, 《김정일애국주의》, 《인민사랑》의 글발이 밝은 빛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가운데 기백있는 대항변화와 불용으로 청년학생들이 펼친 당마크를 중심으로 한 대항원도형은 위대한 당의 무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따라 꿰뚫어 나가는 청년대군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죽어도 버리지 않을 우리 군대와 인민, 청년들의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의지가 비친 해불용을 높이 추켜들 《최후승리》 글발대렬이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야말 신념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발걸음도 드노이 광장을 행진해나갔다.

위훈의 영웅메달도형과 《정년》, 《500인》 등의 글발들을 꿰는 힘 넘쳐나고 더운 피 흘린 젊은 수천수만의 심장의 해불들로 수놓아가는 열렬정충들의 대오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중앙을 목숨으로 걸 사용위해나갈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무철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동적인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

리》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마크도형과 《결사옹위하라 리》는 대항군발을 새긴 해불행진 참가자들은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정충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손길아래 세상에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큰업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속박하듯 장광높이 솟구쳐오른 초크탄들이 눈부신 화광을 뿌리며 불꽃보라가 되어 쏟아져내렸다.

총정의 70일전투의 철야전군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청년영웅들의 빛나는 위훈을 축하하는가 각양각색의 고품관들이 러친 천갈래, 만갈래의 불꽃보라들이 흩어지내려 민박이는 벌무리를 이루어 천하를 붉게 물들이었다.

당 제7차대회를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미정표를 마련한 혁사적인 계기로 빛내인 크나큰 감격과 환희의 분출이듯 무수한 줄속보들이 앞을 다투어 뿜어오르며 황룡한 불의 세계를 연해연할 펼쳐놓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시 당의 후비대, 적후대, 익숙부대로,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엘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엘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신의 명도밑에 조선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변명하는 조선을 건설하는 위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린것을 높이 기쁘게 축하합니다.

전통적인 엘남조선선언이 날로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십시오 하고 무척고도 책임적인 사업에서 많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십시오 하고 축원합니다.

엘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쯡

2016년 5월 10일

하노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마호루드 아바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글말이 적혀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마호루드 아바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림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말이 적혀져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최고리사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평양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최고리사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 창건 70주에 즈음하여 귀 당 최고리사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은 창건 후 지난 70년간 《하나의 말레이시아》의 구호밑에 민족적화복과 단합을 실현하고 발전된 말레이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변명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기쁘게 축원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5(2016)년 5월 10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방방비 보도하였다. 로제아의 리아 노보스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내외부에서 가장 높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강연이 일어나고 조선인민이 오대사 진정의 화를 당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에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이 변방 제국을 주장하는 비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히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다.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할것이 없으며 오히려 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하시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는 전세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 라고 강조하시었다.

안광라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이 그로록 이른 조인과 환경속에서 위리피를 풀러내고 견고분투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을 건설한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이것은 조국의 장성변명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당보로 마련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로 수호할수 있게 한 역사적공적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총력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 세상을 놀라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조선이 중립국은 지주, 핵무기,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반제자주력량파의 단결을 강화하여

세계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해적이고 세계자주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은 세계주의의 핵위협과 전황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선택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주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나와외 국영TV방송과 민족과 지오방송, 이란의 타스넬통신, 이스라엘, 프랑스TV방송, 파르스 투데아 방송, 인디언의 ANI통신, 지 뉴스 TV방송, NDTV방송, 신문통신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두》, 파키스탄 신문통신 《강》, 《더 베이유》, 《더 뉴스》, 《파키스탄 옵세버》, 도이첼란드의 데레아통신, 스위스신문 《라게스 인포게트》, 미국의 UPI통신, CNN 방송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의 요지를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연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장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역사적분수령을 이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연회가 10일 목란관 인민문화회관, 유류관, 정류관, 중앙민속, 중앙고려호텔, 당 각도국세호텔, 종합문화사(무지개)호, 식당(대동강)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당 제7차대회를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경축하는 참가자들의 긍지와 환희로 실려있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인물들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우당대표들, 반세기민족민주전선 중앙지도부 대표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제1분본조선연회 회장, 제2분본조선연회합회축하단 성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경축연회에서는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태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김형태동지, 오수용동지, 양원섭동지, 김원홍동지가 연설

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된 환희에 넘쳐 당 제7차대회를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경축하는 참가자들의 긍지와 환희로 실려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민족사적목표사변들과 위대한 승리를 함께 이룬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당대회에서 제시된 투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상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연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높이 받들고 역사적인 당대회에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동원력을 과감히 전개하여 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을 만민에게 펼쳐질 절제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장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역사적인 새 비정표를 아로세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최상최대의 감격과 환희의 소시에 접한 전체 총련인물들과 재일동포들은 크나큰 기쁨과 행복으로 하여 웃고웃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누비에 힘있게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한결같은 충성심의 분출이며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펼쳐질 위대한 변명의 새 역사를 확약하는 특기할 혁명적대경사이십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인물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경모의 정과 절대불변의 충성심을 담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원없이 고결한 도덕적외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새로운 병진로선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과 자강혁명위업수행의 비호를 독창적인 사상과 로선으로 백두산대국의 최전성기를 마련하신 회세의 사상리본을 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일일단결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시고 가장 숭고한 혁명의 정으로 조국땅의 남녘로소 모루를 세히히 보살피주시고 위대한 전우여, 동지여의 화복을 수놓으시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 강성명명의 만리마시대를 열어놓으신 창조와 지장이시며 절충한 정치가, 인민의 지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최약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조선의 국력을 최강의 경지에서 펼치시고 반만년민족사의 최대경사, 최대성공이 다발적, 빈발적으로 일어나는 주체적국방공업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었고 우리 조국을 핵강국, 우주강국의 전령에 당당히 들어오게 하심으로 세계주의자들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사에 총지부루 찍게 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양이시며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수호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내외관계를 세련된 도전을 짓부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시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자주위업의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대행운을 받아안은 이 시각 저희들은 재일동포들을 두루보는 정을 잊고 사는 한식술로 포근한 안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애와 같은 은은이 자꾸만 피세져져 부풀어오르는 승연한 감정을 누를길 없습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태어나 주체의 레드를 따라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온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정통의 길, 애국애족의 길, 강성명명의 길로 현명하게 영도해주시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총련경성 80주에 즈음하여 보내주시 강령에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총련의 기본사업방향과 5대과업을 천명하시고 그 수행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엄과 애국 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철저히

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재일동포자녀를 위해 막대한 교육원조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재일조선대학교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이어나갈 중요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결연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고있습니다.

정명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조선혁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총련인물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모신 날다른 대행운을 안고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기세드높이 전진시켜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적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아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와 통일강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백년대계의 전로를 펼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보고에 접한 총련인물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변명하는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향하여 총력전환 결심을 더 굳게 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어김없이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일단결 초심으로 받들어오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맞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 명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업의 존엄으로 빛나게 강위력한 주체적대외교포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전체 총련인물들은 총련대외의 일일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사상을 구현한 총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속에 들어가 철저히 동포들을 위해 열심부루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복잡하고 일본당국의 탄압행동이 우심하면 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시 강령적지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을 독실하게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대외사업에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입니다.

전체 총련인물들과 재일동포들의 최상최대의 념념은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민족의 대양이시며 총련인물들과 재일동포들의 지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게 부디 옥색건강장수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5(2016)년 5월 10일

일본 도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시청하는 총련일군들의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시청하는 총련일군들의 모임이 1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최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을 비롯한 총련중앙일군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인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탁월한 사상리본과 비범한 명도, 숭고한 덕행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더불어 총련애국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적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며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와 통일강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전로를 명심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주체적대외조선인운동에 구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대로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 나갈 총련의 결의를 가다듬었다.

총련의 총련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9일 민주주의당 당에서 의례담화하여 오가미 정 이적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대표단을 만났다.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